

# 그림에 담은 천년의 '佛香'

## 국내 유명작가 25명 경주박물관서 '천년의 황금도시 - 경주전' 개최



9월 5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천년의 황금도시 - 경주전'에서 신라문화원장 진병길씨가 관객들에게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을 통해 신라 천년의 숨결을 찾아보는 이색 그림전이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마련됐다. 북촌미술관(관장 전운수)이 주최하고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이 주관하는 '천년의 황금도시-경주전'이 그것.

9월 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는 국내외의 유명작가 25명이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경주남산을 비롯한 석굴암, 불국사, 분황사 반월성 등 경주의 문화재를 찾아 화폭에 담은 100여 점의 그림이 전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경주시나이어 클럽 소속의 문화유산해설사들이 그림속의 문화유산을 설명해주고 있어 그 의미를

### 경주 남산 문화재 화폭에 문화유산 해설가가 설명 28일까지 전시, 전국 순회도

다한다. "박대성 화백은 초등학교 졸업이 유일한 학력이며, 한국전쟁 때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열심히 그림을 그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화가가 됐습니다. 이 작품은 박대성 화백이 그린 경주남산인데요. 황룡사 9층 목탑과 분황사모전 석탑, 불국사와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까지 경주의 모

든 문화유적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9월 6일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실에는 문화유산해설사 이정희(62)선생이 십여 명의 현대 기아 자동차 협력단에서 온 단체 관람객들을 안내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림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전시회를 기획한 북촌미술관 이승미 부관장에 가서 작가들에 대해 들은 내용을 꼼꼼히 메모해두었다가 작가의 의도나 뜻을 전했다. "이것은 비단에 수묵채색 한 김현철씨의 작품인데요. 천상의 불국사를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그렸답니다. 이것이 석가탑, 이것이 다보탑, 그리고 이곳이 관음전입니다."

다.' 천상의 불국사가 새로운 느낌으로 전해진다.

"이 작품은 문봉선 작가가 그린 황룡사지 받침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옛 황룡사를 얼마든지 마음으로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9층 목탑과 금당 등..."

그냥 허허벌판으로 보이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은 작가의 의도를 생각하며 옛 신라인의 눈으로 살피는 황룡사지는 다른 맛과 맛을 지닌다.

100여점의 작품에는 25명의 작가들이 만난 경주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빛깔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반월성터, 화사한 유채밭 너머 첨성대, 구르는 돌마져 범상치 않은 남산을 오르는 길, 남산 곳곳에 산재한 불상 등. 김범석 화백이 남산꼭대기에서 360도를 돌러보며 스케치하고 6개월간 작업한 대자 남산별곡은 경주의 과거와 현재가 모두 들어있다.

양동마을, 옥산서원, 기림사, 석굴암 일출을 그린 이호신 화백은 "보통 문화유적이려면 과거에만 존재했던 것으로 단정하는 이들이 많은데 문화유적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살아있는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는 진경산수화나 풍속화처럼 2000년의 역사를 풀어낸 경우를 오늘의 미감으로 고스란히 드러내 놓았다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천년의 황금도시 - 경주전'은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북촌미술관과 부남미술관에서도 열릴 예정이며, 차후 전국 순회 전시도 예정 중이다.(054)740-7518

배지선 기자 jsun@buddhanews.com

### '춘향가 원창' 도전하는 불자 자매

임혜진 · 혜정



독실한 불자집안에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불교계 유지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파라미터학생회활동을 해온 대구의 두 자매가 다섯 시간에 걸친 판소리 춘향가 원창 발표회를 갖는다.

임혜진(경북예고1·원쪽사진) 혜정(덕원중2양이 주인공. 언니 혜진양은 9

대상, 제12회 대구불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동생 혜정양은 9월 20일 오후4시 같은 장소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혜진·혜정양은 둘 다 부여 비로자나유지원을 졸업했으며, 일곱 살 때부터 반야심경을 줄줄 외워 주위를 놀라게 했다. 혜진양은 덕원중학교 파라미터 학생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모범회원으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목소리가 쉼 없이 울리며 TV 등에 나오는 국악공연만 보면 흥에 겨워했다는 두 자매. 혜진양은 8세부터, 혜정양은 6세부터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대구문화문화재 8호 (사)영남판소리보존회 이사장 이명희 명창으로부터 사사 받고 있는

수제자로 지난해 두 시간 삼십분에 걸쳐 흥부가를 완창했다.

현재 경북예고 학생회장으로 집과 학교 학원을 빠지지 않고 다니며 소리를 배워온 혜진 양은 2002년 제2회 인천학생국악경연대회 은상, 2005년 부

편풍물 대축제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월 15일 오후 3시 대구 불산문화회관 대

공연장에서, 동생 혜정양은 9월 20일 오후4시 같은 장소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표경력을 갖고 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울통소리통을 가졌다는 칭찬을 듣는 혜정양도 2000년 TJB 주최 제8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2002년 제4회 상주전국민요경연대회 특별상, 2003년 제17회 전국 청소년국악경연대회 대상 등을 수상했다.

대구 경북불교대학 14기 졸업생인 어머니 백미정씨는 두 자매의 춘향가 완창발표회를 앞두고 매일 아침 사랑을 찾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아버지 임정식씨 또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야심경 사경을 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 팔공산 갓바위 참배 쉬워져요

### 경산방면 주차장 무료화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 일명 갓바위 부처님을 참배하기 위해 오르는 경산 외촌방면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경산시와 갓바위주차장 관리자 사이의 오랜 운 영권분쟁에서 승소한 경산시는 9월부터 주차장을 직영하고 무료로 운영한다.

경산시는 주차장에서 선분사까지 편도 1차로의 진입도로가 좁고 보행통로가 없는

점을 감안해 내년까지 보도를 확보하고 승터를 마련하는 등 일대 도로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며, 도로정비를 하는 약 1년간 68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 팔공산관리사무소는 9월부터 팔공산 등산로 보수작업을 시작해 내년 1월부터는 대구시 동구 도동 팔공산 관암사에서 갓바위에 이르는 725m 구간이 새롭게 단장된다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 구미불청, 보리수공부방 개원

구미불교청년회(회장 박현도)가 구미 선기동 구미불교청년회관문화센터(센터장 김수용)에 보리수공부방을 9월 2일 개원했다. (사)대한불교청년회가 행정자치부의 후원으로 9월부터 12월 중 둘째 토요일마다 시행하는 공부방사업 '놀토! 우리함께 놀아요'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 그러나 구미불교청년회는 노는 토요일 뿐 아니라 매주 토요일 공부방을 상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보리수공부방은 지역 초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노는 토요일인 2, 4주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나머지 토요일은 낮 12시부터 오후5시까지 공부방을 운영한다.

9월 2일 구미불교청년회관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구미사암연합회장 정우 스님과 (사)대불청 중앙회 류현일 감사 등의 구미 불교청년회원과 보리수공부방에 등 록한 지역청소년과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배지선 기자

### 불교청정운동 대구서 법회



(재)대한불교진흥원 청정운동 대구추진 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대불청 대구지구와 대구불교신앙회가 주관한 청정운동대구순회법회가 대구 관악사 법당에서 9월 3일 봉행됐다(사진).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법회에는 관악사 주지 지도 스님과 구도회 하재웅 회장, 대광명인불자회 이재달 회장, 동구칠일심회 조규택 회장, (사)대불청 이만희 대구지구장 등 지역신행단체장들도 대거 동참했고, 청정운동추진위원장 송석구 교수가 '보현보살의 10대행원과 현대적 실천'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배지선 기자

### 진성 스님, 장학금 마련 전시

대구 금화사 주지 진성 스님이 9월 5일부터 10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연화사계 사진전을 개최했다. 25년이 넘도록 사진을 찍어 온 스님이 장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스님은 6년여 동안 청도, 경산은 물론 충남 부여 공남지, 전북 전주 덕진동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담아낸 연꽃사진 50여점을 선보였다. 스님은 연꽃의 사계를 통해 생로병사의 이치를 작품에 담았다.

배지선 기자

### 영남불교대, 어린이집 열어

영남불교대학 사회복지법인 참풍은 어린이집(원감 최정애)이 9월 6일 개원했다.

참풍은 어린이집은 3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들을 수용하며, 다도실, 발레실 등 특별실과 최첨단 방송 스튜디오, 수영장, 자연생태공원, 전통문화 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다. 내년 3월에는 유치원도 개원할 예정이다. 장에 아동을 위한 행복어린이집(가칭)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9월 30일부터

### 조선왕조실록 학습심포지엄도

제3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평창 월정사, 상원사 등 오대산 일원에서 펼쳐진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는 모토아래 진행되는 불교문화축전은 공식행사를 비롯 뜻깊은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어린이 어울마당 △진견 및 전시의 장 △공

연의 장 △나눔의 장으로 나눠 진행된다.

학습심포지엄 '조선왕조실록 기념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문을 여는 불교문화축전에서는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식과 월정사 탑들이 등으로 전통문화 원형을 복원하고 이를 재현한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오대산 전국 학생 사생대회, 백일장대회, 어린이 불교동요 배우기 및 경연대회 등으로 지역청소년 문화체험의 기회를 넓히고, 청소년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판소리 창작한마당, 산사음악회, 산사영 화제 등을 통해 강원도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도 꾀한다.(033)332-6661-5

남동우 기자

### 결혼이민자여성에 한복 지원

불교사회복지회 산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태화)는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 여성들이 한복을 입고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9월 25일까지 한복을 후원한다.

또 9월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결혼 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신기한 컴퓨터 교실'을 연다. (053)475-2324

###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사 : (054)634-3429



## 제1회 니르바나불교사진공모전

니르바나(nirvana)란 불교에서 수행에 의한 최고의 경지인 해탈(解脫)의 의미이며, 현대적으로는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 꺼지지 않는 불꽃을 뜻한다. 광주 덕림사에서는 니르바나불교사진공모전을 마련, 우수한 한국 불교문화와 건축물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Asia 文化 거점도시인 光州를 사진 文化의 메카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 ■ 작품 내용 : 불교문화와 전통문화, 불교건축, 유형무형문화재(문화재 표시)

### ■ 2006년 특별주제 달빛에 관한 사진 (해마다 주제 변경됨) (미풍양속에 저촉되지 않는 국내외의 미발표 자유작)

- 출품 자격 : 전국의 사진애호가
- 작품 규격 : 11"×14" 칼라, 흑백, 디지털(장정불요)
- 출 품 수 : 제한없음      ■ 출 품 료 : 1인당 2만원
- 접수 기간 : 2006년 9월 10일~10월 10일 (당일 소인 유효)
- 출품 방법 : 작품 뒷면에 화제, 주소, 성명, 우편번호,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할 것
- 출 품 처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304-7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덕림사      전화 (062)362-2091~2 / 팩스 (062)362-8413
- 심사 발표 : 2006년 10월 16일(월)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회 홈페이지 (<http://www.kjphoto.or.kr>)
- 수상작전시 : 2006년 11월 5일(일) ~ 11월 10일(금) / 덕림사 경내
- 시 상 식 : 2006년 11월 5일(일) / 덕림사
- 시상 내역 :
  - 금상(1명) -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은상(1명) - 상금 100만원 및 상장
  - 가작(5명) - 상금 10만원 및 상장
  - 특별주제상(1명) - 상금 100만원 및 상장
  - 동상(3명) - 상금 30만원 및 상장
  - 입선(100명 내외) - 상장
- 기타 사항
  1. 입상·입선 작품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임회점수로 인정함.
  2. 입상·입선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주최·주관에 귀속됨.
  3. 본 공모전에 동일작 및 유사작품은 출품하여 입상 또는 입선될 경우 사형회원은 제명되고, 비회원은 10년 동안 입회 유보됨.
  4. 입선 이상 작품의 초상권 문제는 전적으로 출품자에게 책임이 있음.

주 최 \_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덕림사  
주 관 \_ 대한일보, (주)청강일,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광역시지회  
후 원 \_ (사)한국사진작가협회, KBS, 정경뉴스, 불교TV, 광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주)벽진건설, 광주브라운아트센터